

여름 휴가철 버려지는 동물 급증... 지자체 '골머리'

전남 7·8월 800~900마리 유기
완도 등지 유명 피서지 증가세
동물보호소 '포화' 관리 어려워
"유기 방지·개체수 조절에 주력"

"매년 여름 휴가철이 지날 때마다 고향
동네에 떠돌이 개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
더니 무리를 이룰 만큼 많아졌어요. 고향
에 갈 때마다 늘어나 있는 동물들을 보며
동물 유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껴
요."

일부 여행객들이 키우던 반려동물을 여
행지에 버리고 가는 행태가 꾸준히 이어
지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 유기는 여름 휴
가철에 더욱 자주 발생해 바닷가 등 피서
지가 많은 전남의 일선 유기동물보호소는
늘어나는 유기동물 수에 비해 관리 인력
이 부족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자체는
유기동물 관리 지원과 함께 동물 유기 방
지에 힘쓰고 있다.

완도가 고향인 김민경(27)씨는 매년
일부 여행객들이 반려동물을 버리고 가
관리가 어려울 정도로 개체수가 늘어났
고 토로했다.

김씨는 "원래는 동네에 개가 많지 않았
는데 유기견이 점점 늘어나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완도를 찾는 피서객이 많은 여
름 휴가철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부모님과 마을주민들은 굶고 있
는 개와 고양이를 방치할 수 없어 사료를
챙겨주며 관리하고 있지만 늘어가는 동물
들을 모두 키울 수는 없는 실정이다"며
"관리받지 못하는 유기견들이 야생화되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어 우려
된다"고 덧붙였다.

업무상 전남 해안지역에 출장이 잦다는
김모(55)씨도 "피서지로 유명한 전남의
해안가를 다니다 보면 때를 지어다니는
개나 고양이 무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며 "여름 휴가철에는 동물 유기 문제가 더
욱 심각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해 동
안 집계된 유기동물 숫자는 9703마리로
여름 휴가철인 7·8월을 제외하고는 월평
균 792마리가 유기되고 있다. 여름 휴가
철로 한정하면 7월 875마리, 8월 904마
리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키우던 반려동물을 유기할 경우 동물보
호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맹견을 유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
다.



여름 휴가철 반려동물을 버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길거리를 배회하는 유기견의 모습. 독자 제공

일선 동물보호소에서는 유기동물 개체
수가 증가해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남의 한 동물보호소 관계자는 "7·8월
관내 피서지를 방문하는 일부 여행객들이
키우던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가 많다. 매
년 여름철 보호소에 들어오는 유기동물이
유의미하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며
"원칙적으로 유기동물 20마리당 1명의 관

리 인력이 배치돼야 하지만 늘어나는 유
기동물 숫자에 비해 인력은 턱없이 부족
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대부분의 동물
보호소가 마찬가지로 "이라고 말했다.

이어 "휴일과 야간 등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접수되는 유기동물 발견 신고에 관
리인력이 밤낮없이 포획작업에 나서고 있
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지자체는 유기동물 관리를 지원하는 한

편 동물 유기 방지도 총력을 다하고 있
다.

전남도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유기되는
동물들은 대부분 대형견·노화동물 등으로
주인이 병원비와 관리 등에 부담을 느껴 유
기하는 경우가 많다. 유기동물 발생 시 공
고 등을 통해 원주인에게 돌려보내거나 새
로운 주인을 찾아주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전남도에서는 각 시·군의 동물포획·보호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동시에 동물 중성화
지원사업과 반려동물 등록제를 홍보하고
주요 피서지서 유기방지 현수막을 부착하
는 등 동물 유기 사전 방지와 개체수 조절
등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9월30일
까지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하고 10월 한 달간 집중단속에 나선다. 지
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반려동물
등록제에 따르면 동물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
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를 하
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다.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추모제 주관했다 욱고... 정수만 전 5·18 유족회장, 정신적 손배 승소

5·18민주화운동 이듬해 추모 행사를 열
었다는 이유로 욱고까지 치렀던 정수만
전 5·18민주공공자유족회장이 국가를 상
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
다.

광주지법 민사 8단독 김정철 부장판사
는 정수만 전 회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
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장은 국가가 정 전 회장에게 위자
료 8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정 전 회장은 1980년 5월21일 계엄군의
총격으로 남동생을 잃었다. 이듬해 5월18
일 광주 북구 망월동 5·18희생자 묘역에서
항쟁 1주기 추모제 행사를 주관했다. 항쟁
진실을 명확히 규명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는 취지로 직접 추모사도 낭독했다. 당시
경찰은 추모제에서 유족 등 참석자들이 반
미·반정부 성향의 노래를 불렀고 인근 파
출소 앞까지 집단 행진한 점을 문제 삼으
며 정 전 회장을 연행·구타했다.

정 전 회장은 국가보안법·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8
개월의 형이 확정돼 욱고를 치렀다. 이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
는 정 전 회장에게 장해·구급일수 보상
금,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정 전 회장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따로 배상해야 한다며 지난해
소송을 청구했다.

정 전 회장과 함께 원고로 참여한 민주
유공자 3명은 법원의 강제 조정으로 소송
을 종결했다.

김은지 기자

박성주 신임 광주경찰청장 "지역 맞춤형 치안, 시민 불안 해소"

현장 목소리 경청 공언

박성주(사진) 신임 광주경찰청장이
"지역 실정에 맞는 경찰 활동으로 시민 불
안감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각오
를 드러냈다.

광주경찰은 박성주(58)청장이 지난
16일 취임식 갖고 업무에 본격 돌입했
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박성주 청장은 "광주의 치안책임
자로서 막중한 사명감에 마음이 무거운
것도 사실이지만, 광주경찰 일원으로서
동료와 함께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
찰'을 지향점으로 삼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침해사범이 시민의 일상 깊



은 곳까지 침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신속
하고 엄정한 법 집행은
물론이고 사전예방, 현
장 대응, 사후 처벌·관
리를 위해 형사기동대
등 현장 조직을 심분 활
용할 것이다. 가지적 순
찰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경찰을 피부로 느낄 수 있
도록 지역 안전망 확보에
도 주력해야 한다"고 방
향성을 제안했다.
스토킹·가정폭력·학교
폭력 등 치안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예방
과 보호 체계를 더욱 고
도화시키고 현장 경찰
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
력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날로 복잡해지는 범
죄 양상과 더불어 수사,
교통 단속, 재

난 대응 등 다양한 치안
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실정에
따른 치안 데이터를 바
탕으로 예방적 경찰 활
동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시민에게 공감 받는 효
과적인 치안 활동을 펼
치려면 지자체·소방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
업 체계 구축이 필요하
다고 했다.

박 청장은 보성군에서 태어나 광주 광
덕고와 경찰대학 행정학
과(5기)를 졸업한 뒤 1989
년 경찰에 입직했다.

경기청 형사과장, 서울
강서경찰서장, 서울청 수
사과장, 광주청 제2부장,
서울청 수사부장, 경찰청
수사국장, 울산경찰청장,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
장, 경찰인재개발원장 등
을 역임했다.

김은지 기자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곡 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록!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록! 바로 바로 확인까지 록!

zgm, 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 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자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등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 암 벽 산 지 점 062)529-5335~6
지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 을 로 지 점 062)531-1213~5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 동 센 트 럽 지 점 062)361-4472~4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등 지 점 062)372-3741~2	기 아 지 동 차 지 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